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대통령의 연설문 연구*

— 취임사와 신년사를 중심으로 —

조용림**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III. 대통령별 어휘 분석
- IV. 끝맺는 말
-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2022년은 제20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헌법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취임식 선서를 한다.¹⁾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4379)

** Mokwon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coreamal@mokwon.ac.kr

1)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3·1 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는 임시정부 작성의 헌법 초안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다.(문화재청 고시 제2018-182호, 2018.12.3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헌법 제69조)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제69조의 취임 선서부터 규정되어 있으며, 국군 통수권(74조), 공무원 임면권(78조, 86조, 87조 등), 법률안 제출 및 거부권(40조), 행정부 구성권, 외교 관련 조약 체결 및 비준(73조) 등 ‘헌법 수호 의무, 국가의 독립·보전 의무, 직무 수행 의무, 평화 통일 노력 의무’(66조)를 지게 된다. 이렇듯 대통령의 직무 활동 중의 행위 및 연설은 권한과 의무의 직접적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발언 및 연설은 사적 담화가 아닌 헌법과 기타 법률 등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행위로서 기록되며 법률적 효력이나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연설문 중 취임사와 신년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대통령 취임사는 취임 후 첫 공식 발언으로 국가적 당면 과제와 사회적 지향점을 처음 제시하는 것으로 중요성이 높다. 또한 신년사는 취임사에서 밝힌 거시적 국정 목표를 미시적 실천 방향을 밝히는 행위로써 상호 관계성이 높다.

또한 원고의 충실성, 주제의 명확성, 내용의 전달성, 법률 적합성, 정치적 가치관, 개인적 신념 등을 담고 있는 대통령 연설문 연구는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텍스트 연구는 전문가 의견, 설문 조사 등의 전통적 방법이 아닌 해당 텍스트 자체를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결과를 탐구하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연설문에 관한 연구는 대통령 일부를 연구하거나 유형을 제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정치 및 사회과학 분야에 국한되거나, 국어국문학 분야에서 언어 특성, 문체, 높임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²⁾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 연설문 169편을 대상으로 한다. 1948년~2022년까지 74년간, 취임사 19편, 신년사 150편을 대상으로 한다.³⁾ 취임사는 대통령 취임 때 발표되며, 신년사는 매해 발표가 기본이며, 신년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유형별 검색의 신년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에서 검색되지 않은 2019년 신년사를 포함하여 연구 대상으로 한다.⁴⁾

<표 1> 대통령별 기록물 대상 자료⁵⁾

대통령		재임 기간	재임 개월	연설문 자료	취임사 / 신년사
1~3대	이승만	1948.7~1960.4	11년 8개월	998	3 / 17
4대	윤보선	1960.8~1962.3	1년 7개월	3	1 / 0
5~9대	박정희	1963.12~1979.10	15년 10개월	1,270	5 / 23
10대	최규하	1979.12~1980.8	8개월	58	1 / 1
11~12대	전두환	1980.9~1988.2	7년 5개월	602	2 / 13
13대	노태우	1988.2~1993.2	5년	601	1 / 6
14대	김영삼	1993.2~1998.2	5년	728	1 / 10
15대	김대중	1998.2~2003.2	5년	822	1 / 21
16대	노무현	2003.2~2008.2	5년	780	1 / 12
17대	이명박	2008.2~2013.2	5년	819	1 / 22
18대	박근혜	2013.2~2017.3	4년	493	1 / 18
19대	문재인	2017.5~2022.5	5년	1,392	1 / 7
계				8,566	169

- 2) 선행연구는 조용립(2022:353)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 3) 분석 대상 자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하였다(<https://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 4) 1951년, 1960년(이승만), 1961~1962년(윤보선), 1963년(대통령 권한대행), 1988년(전두환), 1993년(노태우), 2017년(박근혜)은 신년사가 미발표되었으며, 확대된 신년사 대상에는 ‘경제계, 교육계, 여성계,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인’ 등이 있다.

2. 텍스트 마이닝 연구 방법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문장 단위의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의미를 분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법이다(조태호, 2001:77).

지금까지 텍스트 마이닝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의 난해함으로 완벽한 문장을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한국어 분석 기법의 발달로 텍스트 마이닝 연구가 활발해졌다.⁶⁾ 최근에는 ChatGPT-4 등 생성형 AI의 개발로 원문 자료를 바로 형태소 분석, 주제어 추출 기법 등의 분석 없이도 바로 연구가 가능하며, 교육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와 신년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특성값 추출을 중심으로 특성값 핵심 어휘를 제시하고자 한다.⁷⁾ 빅카인즈의 형태소 분석을 활용하여 어휘 빈도와 알고리즘에 의한 연관어 파악과 특성값은 연설문 내에서 비중이 큰 값을 표시하여 연설문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설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장에서는 특성값을 중심으로 대통령별 어휘를 제시하도록 한다.

5) 기록물은 취임사 발표일을 기준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참조하였다.

6) 조용립(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글쓰기 자료 분석」, 『문화와 융합』 42-5, 한국문화융합학회, pp.280-281.

7)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제공하는 ‘특성추출’ 분석기를 이용하여 ‘특성값’을 제시한다. ‘특성추출’이란 텍스트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명사 추출 키워드이다. ‘특성값’은 특성추출에 기반해 계산된 중요도 값이며, 중요도는 ‘텍스트 랭크(Text Rank)’ 알고리즘으로 자동 판단된다.

Ⅲ. 대통령별 어휘 분석

1. 1대~4대(이승만, 윤보선) 대통령의 어휘

1대~3대 이승만 대통령은 11년 10개월 동안에 취임사 3편, 신년사 16편이 발표하였다. 4대 윤보선 대통령은 1년 7개월 동안에 취임사 1편만 발표되었다. 특성값 추출에 의한 특성값 어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1대~4대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구분	취임사	신년사	특성값 ⁸⁾	비고 ⁹⁾
	특성값			
1대 이승만 48.7.24.~52.8.14.	눈물	민주정체	0.01984	49.1.1. 신년사
		아세아 자유	0.00884	50.1.1. 회망
	0.00834	불평분자들	0.00993	50.1.11. 신년사
		공산군	0.01579	52.1.1. 신년사
2대 이승만 52.8.15.~56.8.14.	원수들	침략자들	0.01827	52.12.31. UN군
		미국	0.01367	52.12.31. 국민
		미국	0.02191	53.1.1. 신년 하사
	0.00991	공산주의	0.03033	53.12.29. 이북동포
		우방들	0.01270	54.12.29. 신년사
		공산당	0.01498	54.12.31.북한동포
		남북통일	0.01280	55.12.31. 신년사
		남북통일	0.00947	56.1.1. 신년사
3대 이승만 56.8.15.~60.4.27.	우리나라	헝가리	0.00893	57.1.1. 신년사
		헝가리 사람들	0.01135	57.1.1. 이북동포
	0.01356	사람들	0.02038	58.1.1. 신년사
		우방들	0.01721	58.1.1. 이북동포
		동포들	0.08300	59.1.1. 신년사
4대 윤보선 60.8.13.~62.3.22.	외교 정책	미발표		
	0.01446			

<표 2>는 1대~4대의 취임사와 신년사 특성값 결과이다. 1948년 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눈물”이 특성값이 높았다.¹⁰⁾ 신년사에서는 “민주” 공화국으로 독립된 세계의 일원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아세아 자유, 불평분자들”처럼 세계적 갈등, 52년 신년사에서는 전쟁 대상인 “공산군”을 언급하고 있다.

1952년 2대 취임사에서는 “원수들”이 특성값이 높았다.¹¹⁾ 53년 신년사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침략자들, 미국”의 특성값 어휘가 높았다. 전쟁을 범한 대상, 우방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54년 신년사에서는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북한동포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우방들”의 도움으로 휴전하게 되었으며, 북한동포에게 “공산당”의 잘못을 언급하면서, “남북통일”완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956년 3대 취임사에서는 “우리나라”가 특성값이 높았다.¹²⁾ 57년 신년사에서는 “형가리(사람들)”대혁명 운동을 언급하면서 이북동포들에게 자유의지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58년 신년사에서는 양 진영의 “사람들”이 합심하는 관계라 하였다. 이북동포 신년사에서는 한국전쟁의 상흔 치유, 이북동포에게 “우방들”과 합심하여 공산군을 물리치자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59년 신년사에서는 500자로 새해 축하와 위로 등의 인사말 정도이다. 1960년 4대 취임사에서는 “외교 정책”이 특성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았다.¹³⁾

8) ‘특성값’은 알고리즘에 의해 큰 값이 핵심 어휘이다. 한편 특성값 어휘의 의미 파악이 어려울 때는 차순위 값을 제시하도록 한다.

9) 비교에서는 매년 발표되는 신년사는 연도를 표기하고, 대상을 달리하는 신년사는 주요 대상을 표기한다.

10) 조용립(2022:358)에서는 “눈물”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건국 상황의 힘겨웠던 상황을 제시하여 특성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이후 취임사와 관련해서는 조용립(2022)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11) 조용립(2022:358)에서는 2대 취임사의 특성값 어휘로 “문제”를 제시하였지만, 연관어와의 의미 파악이 부족해 차상위 어휘인 “원수들”로 수정 제시한다.

12) 조용립(2022:358)에서는 “국민에게 불공평, 공산당, 난동과 혁명운동, 내정, 주권, 교육, 생산력, 농민” 등 국가 중대 의제 제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사용되고 있다.

2. 5대~9대(박정희) 대통령의 어휘

5대~9대 박정희 대통령은 15년 10개월 동안 취임사 5편, 신년사 23편이 발표되었다.

<표 3> 5대~9대 대통령의 특성값 어휘

구분	취임사	신년사	특성값	비고
	특성값			
5대 박정희 63.12.17.~67.6.30.	공화국	공무원	0.00882	64.1.1. 신년사
		수산자원	0.00916	64.1.10. 수협지
		경제건설	0.00983	65.1.1. 신년사
		근대화	0.00995	65.1.1. 교포, 유학생
	0.00683	우리나라	0.05132	65.1.1. 어린이
		영광	0.00704	66.1.1. 신년사
		조국 근대화	0.00828	67.1.1. 신년사
		자유 월남	0.01951	67.1.1. 주월 장병
		양국 국민	0.03448	67.1.1.일본국민
6대 박정희 67.7.1.~71.6.30.	민주주의	경제 건설	0.02061	68.1.1. 신년사
		조국 재건	0.01483	68.1.1.해외동포
		건설	0.00387	69.1.1. 신년사
	0.01075	自由	0.00691	69.1.1. 파월 장병
		국민 생활	0.00980	70.1.1. 신년사
		문화 민족	0.01305	71.1.1. 신년사
7대 박정희 71.7.1.~72.12.26.	통일 조국	평화 통일	0.00757	72.1.1. 신년사
	0101144			
8대 박정희 72.12.27.~78.12.26.	민족 통일	유신과업	0.00572	73.1.1. 신년사
		유신과업	0.01299	74.1.17. 신년사
		국제 경제	0.01042	75.1.1. 신년사
	0.01043	경제 발전	0.01149	76.1.1. 신년사

- 13) 4대 윤보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3·15부정선거로 하야하고, 허정 대통령 권한 대행의 2공화국 헌법 공포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세계 경제	0.00817	77.1.1. 신년사
		국민 정신	0.01232	78.1.1. 신년사
9대 박정희 78.12.27.~79.10.26.	국민생활 0.00836	정신 문화	0.00888	79.1.1. 신년사

1963년 5대 취임사에서는 “공화국”이 특성값이 높았다.¹⁴⁾ 64년 신년사에서는 제3공화국은 능률의 정치와 행정, “공무원”의 정신 혁명, 일하는 정부와 국민 등을 주장하였다. 수협소식지에 실린 신년사에서는 배우고, 일하는 어민 등 “수산자원”의 확대를 전하면서 새 정부를 홍보하고 있다. 65년 신년사에서는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면서 “경제건설”, 전진을 주장하고, 해외동포에게는 선진문명을 접한 일꾼들에게 “근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이 신년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66년 신년사에서는 65년 한일 국교 타결, 월남파병,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완료, 국가의 비약적 발전이 “영광”을 위한 전환점이었다고 하였다. 67년 신년사에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월남파병 등 외교와 국방, 경제적 발전이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전진이라고 하였다. 주월 장병에게는 “자유 월남” 수호를 당부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에게는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국민”의 우호와 협력을 기원하고 있다.

1967년 6대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가 특성값이 높았다.¹⁵⁾ 68년 신년사에서는 경제 성장, 자주 경제, 2~3차 경제개발로 경제적 자립과 조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동포들에게 “조국 재건”을 당부하고 있다. 69년 신년사에서는 민족의 중흥으로 싸우며 “건설”하자는 각오를 보이며, 민족의 저력, 경제, 국방 등의 “건설”을 선언하

14) 조용립(2022:361)은 5대 취임사의 어휘에는 “국민, 영광, 정신적 혁명, 반세기” 등의 어휘가 나타났으며, “복지”가 대통령 취임사에 처음 등장한다고 하였다.

15) 조용립(2022:361-362)에서는 6대 취임사의 어휘로 “공산주의, 민주사회, 역사적 대업, 통일조국” 등 북한과의 사상적 대결, 국내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어휘가 특성값이 높았다고 하였다. “근대화, 공업 입국, 경제발전, 창조력, 경제적 자립, 경제건설”,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라는 취임사의 핵심을 전하고 있다.

였고, 월남파병 군인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70년 신년사에서는 3선 개헌, 국민소득 500불, 수출 50억 불, 문화와 예술이 “국민 생활”에 접근하여 국민 정서 순화, 국민 체육 보급 등을 발표하였다. 71년 신년사에서는 3차 경제개발 준비, 선거, 국력이 중요하며, 우방의 지원, 향토예비군 강화, 외교 강화, 경제건설, 번영과 복지를 위한 중화학 공업의 육성, “문화 민족”의 궁지와 명예를 위한 분발을 촉구하였다.

1971년 7대 취임사에서는 “통일 조국”이 특성값이 높았다.¹⁶⁾ 72년 신년사에서는 “평화 통일”, 자주국방과 군장비 현대화, 학교 교련의 내실화, 민방위력 강화, 3차 경제개발, 과학기술 연구,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 공무원 관료주의 타파, 국민의 사치와 낭비, 부조리 추방, 근면과 성실의 생활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해 10월에 유신 헌법 개헌으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1972년 8대 취임사에서는 “민족 통일”이 특성값이 높았다.¹⁷⁾ 73~74년 신년사는 내용이 유사하며, 유신이념, 유신질서 등 “유신과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75년 신년사에서는 오일쇼크로 물가 폭등과 불황, 경제성장률의 급락, “국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중화학 공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76년 신년사에서는 세계 경제불황에도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4차 경제개발 계획의 준비 등 자립 체제 완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77년 신년사에서는 세계 진출 동포들이 “세계 경제” 악조건의 극복 노력을 치하하고, 세계평화·자주국방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78년 신년사에서는 자주정신, 국민정신교육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국민 총생산 1,000 불 달성을 위해 “국민정신”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978년 9대 취임사에서는 “국민 생활”이 특성값이 높았다.¹⁸⁾ 79년 신년사

16) 조용립(2022:362)은 7대 취임사에서는 “평화 통일, 통일 국력, 세계 평화, 자유 이념, 평화 통일 제의” 등 남북문제 관련 어휘가 특성값이 높았다고 하였다.

17) 조용립(2022:362-363)은 8대 취임사에서 분단된 남북문제 언급으로 “민족 통일” 어휘가 특성값이 높았다고 하였다. “유신질서, 유신이념, 유신과업”의 어휘는 새로운 헌법 정신을 펼치고,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복지, 새마을 정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70년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80년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력 상승, “정신 문화” 선양에 힘쓰자고 하였다.

3. 10대~13대(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어휘

10대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1편, 11대~12대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 2편, 신년사 13편, 13대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6편이 발표되었다.

<표 4> 10대~13대 대통령의 특성값

구분	취임사	신년사	특성값	비고
	특성값			
10대 최규하 79.12.21.~80.8.16.	국민 각계 각층	사회 안정	0.01069	1980.1.1. 신년사
	0.00459			
11대 전두환 80.9.1.~81.2.24.	민주주의	공화국	0.01570	1981.1.1. 신년사
	0.00654			
12대 전두환 81.3.3.~88.2.24.	국가 민족	5공화국	0.00637	1982.1.1. 신년사
		동포들	0.00812	1983.1.1. 신년사
		평생동지	0.01198	1983.1.1. 당원동지
		국제환경	0.02933	1983.1.6. 대한상의
		선조들	0.01354	1984.1.1. 신년사
		평생동지	0.02010	1984.1.1. 당원동지
	0.00905	스스로 개척	0.00896	1985.1.1. 신년사
		평생동지	0.01689	1985.1.1. 당원동지
		나라 안팎	0.01509	1986.1.1. 신년사
		발걸음	0.01698	1986.1.1. 당원동지

- 18) 조용립(2022:363)에서는 9대 취임사는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며, “국민 생활” 노력으로 경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결과로 보았다.

13대 노태우 88.2.25.~93.2.24.	민주주의 시대 0.00965	아시아	0.01482	1987.1.1. 신년사
		평생동지	0.00886	1987.1.1. 당원동지
		계층 국민	0.01058	1989.1.1. 신년사
		민주화	0.01527	1989.1.1. 민정신문
		민주주의	0.01302	1990.1.1. 신년사
		민주주의	0.01445	1991.1.1. 신년사
		민주주의	0.01313	1992.1.1. 신년사
		경제적	0.01012	1992.1.8. 대한상의

1979년 10대 취임사에서는 “국민 각계각층”이 특성값이 높았다.¹⁹⁾ 80년 신년사에서는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 분야의 발전을 보장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권력 이양을 위한 “위기관리정부” 방침에 따라 취임 8개월 만인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1980년 11대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가 특성값이 높았다. 81년 신년사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발의를 통해 새 시대의 원년임을 주장하였으나 8 차 개헌으로 간선제의 7년 단임 대통령으로 재선출되어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며, 1981년 12대 취임사에서는 “국가 민족”이 특성값이 높았다.²⁰⁾ 82년 신년사에서는 제5공화국의 목표, 경제적 성장을 주장하였다. 83년 신년사에서는 남북 “동포들”이 통일을 기원하면서, 경제적 성과로 민족의 위대성을 증명하였으며,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고 있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평생동지”들에게 의식개혁 선도와 경제전쟁을 극복 하고 국민 생활을 책임질 사명이 있다고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사에서는 국제 경제의 어려움과 “국제환경”의 심각성은 기업인들이 국제경쟁력 강화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84년 신년사에서는 “선조들”의

19) 조용립(2022:365)에서는 10대 취임사 특성값으로 “본인”을 제시하였으나 어휘 관계망 설정에 어려움으로 차상위 특성값인 “국민 각계각층”을 수정 제시한다. 10 · 26사태로 국민생활,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으로 시련 극복의 취임사를 발표하였다.

20) 조용립(2022:365-366)에서는 12대 취임사 특성값으로 “본인”을 제시하였으나 “국가 민족”으로 수정하여 제시한다.

백지 한 장도 마주 들면 가볍다는 속담처럼 단합을 다짐하고 있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평생동지”에게 봉사와 희생정신, 선진국을 향한 전진과 민족 과업의 견인을 기약하고 있다. 85년 신년사에서는 운명의 개척자로서 단합하여 국운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 의식의 실천을 기원하고 있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평생동지”로서 봉사와 희생으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86년 신년사에서는 선진과 통일을 위한 다짐과 포부가 “나라 안팎”에 펼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아시안게임 개최로 힘찬 “발걸음”,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주인의식으로 뭉치자고 하였다. 87년 신년사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으로 세계 중심권에 다가서기를 기원하였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민족 저력을 과시했으며, 국제수지 흑자, 국민 총저축률 달성은 “민주정의당 평생동지” 덕이며, 평화적 정부 이양의 주역을 요구하고 있다.

1988년 13대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시대”가 특성값이 높았다.²¹⁾ 89년 신년사에서는 직접선거로 정통성의 시비가 사라졌으며, 국민의 높은 민주 의식과 중산층의 확대, 노사와 “계층 국민”이 화합하여 선진국가, 통일조국을 실현한 기회라고 하였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권위주의 청산, “민주화” 추진으로 경제적 성장이 될 것이며, “민주화”의 문제점을 극복하자고 하였다. 90년 신년사에서는 선진국이 되는 희망으로 국민소득 증가, 경제 발전, 서울올림픽의 영광, 4·19의거 30주년으로 번영하는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 통일된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 91년 신년사에서는 냉전체제 붕괴, 과학기술 혁신이 생활과 의식까지 새롭게 하고 있으며, 전쟁 이후의 성공적 표본, 굳건한 “민주주의”를 전하였다. 92년 신년사에서는 남북합의서 서명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 “민주주의”발전, 통일된 “민주주의”의 나라, 선진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사에서는 “경제적” 8%의 성장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21) 조용립(2022:366)에서는 1987년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대선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고, 취임 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시대정신을 취임사에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EU 공동체 통합 등 “경제적” 역량을 축적하여 기업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4. 14대~16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어휘

14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10편, 15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21편,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12편이 발표되었다.

<표 5> 14대~16대 대통령의 특성값

구분	취임사	신년사	특성값	비고
	특성값			
14대 김영삼 93.2.25.~98.2.24.	신한국	세계 질서	0.01274	94.1.1. 신년사
		해외동포	0.02997	94.1.1 해외동포
		세계화	0.02623	95.1.1. 신년사
		21세기	0.01640	96.1.1. 신년사
		중소기업	0.02184	96.1.5. 대한상의
	0.01275	세계 일류국가	0.01559	97.1.1. 신년사
		신한국당	0.01216	97.1.1. 당원
		경쟁력	0.01049	97.1.6. 대한상의
		국민 대화합	0.01969	98.1.1. 신년사
		지도자	0.01591	98.1.6. 대한상의
15대 김대중 98.2.25.~03.2.24.	21세기	21세기	0.01005	99.1.1. 신년사
		21세기	0.01285	99.1.5. 대한상의
		21세기	0.03629	00.1.1. 신년사
		새천년	0.00601	00.1.3. 새천년 신년사
		21세기 세계	0.01339	00.1.4. 대한상의
		과학기술	0.02267	00.1.7. 과학기술인
		4대 개혁	0.00783	01.1.1. 신년사
		한국 경제	0.01208	01.1.4. 대한상의

		과학기술	0.02773	01.1.5. 과학기술인
	0.00593	한국	0.01924	01.1.10. 여성지도자
		환경 보전	0.01078	01.1.16. 환경인
		국민 여론	0.01058	02.1.1. 신년사
		한국	0.01106	02.1.2. 청와대 인사
		과학기술	0.02335	02.1.3. 과학기술인
		세계 일류	0.00861	02.1.4. 대한상의
		우리나라 환경	0.01594	02.1.28. 환경인
		월드컵	0.04305	02.2.9. 설날
		대한민국	0.02006	03.1.1. 신년사
		미국	0.02409	03.1.2. 신년인사회
		한국	0.00917	03.1.6. 대한상의
		외환위기	0.01028	03.1.16. 직능연합
16대 노무현 03.2.25.~08.2.24.	동북아 시대	동북아	0.01031	04.1.1. 신년사
		정치 지도자	0.00745	04.1.6.경제계
		과학기술	0.01983	04.1.7. 과학기술인
		경쟁력	0.00732	04.1.14. 신년 기자회견
		지역균형발전	0.01688	04.1.20. 설날
		정보통신	0.02356	04.1.27. 정보통신인
	0.01206	대기업	0.02395	05.1.1. 신년사
		IMF 위기	0.01402	06.1.1. 신년사
		일자리	0.00931	06.1.18. 신년연설
		부동산	0.02140	07.1.1. 신년사
		참여정부	0.00843	07.1.23. 신년연설
		새해 인사	0.03256	08.1.1. 신년사

1993년 14대 취임사에서는 “신한국(창조)”이 특성값이 높았다.²²⁾ 94년 신년사에서는 “세계 질서” 경쟁에서 한국 위상 상승, 북한의 개방과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의 역사에 동참을 촉구하였다. 해외동포 신년사에서는

22) 조용립(2022:368)에서는 군부정권을 청산하여 “문민정부” 강조와 “신한국 창조”를 주창하고 있다고 하였다.

변화와 개혁,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 지났으며, “해외동포”는 조국 국제화의 선구자이며 신한국 건설, 조국통일, 한민족 번영의 최첨단이라고 하였다. 95년 신년사에서는 “세계화”원년, 경쟁, 지방화, 남북통일 등 참여와 단합의 결의로 세계로 나가자고 하였다. 96년 신년사에서는 세계화 정책 추진으로 “21세기” 미래 개척,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정의로운 사회, 세계중심 국가로 전진하자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금융과 부동산 실명제에 협조를 당부하였고, “중소기업”육성으로 경제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하였다. 97년 신년사에서는 새로운 세기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자면서, 민주화·산업화로 꿈과 희망을 갖자고 하였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4·11총선 승리, OECD 가입, ASEM 유치, 2002년 월드컵 결정으로 국위 상승, “신한국당”이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7% 성장,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국제 “경쟁력”향상에 힘을 쏟자고 하였다. 98년 신년사에서는 “국민 대화합”으로 경제 부흥, IMF로 인한 국민의 고통, 김대중 대통령 선출로 위기 극복과 단합을 전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경제계)지도자”의 고생이 크며, 제심합력(齊心合力)하여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였다.

1998년 15대 취임사에서는 “21세기”가 특성값이 높았다.²³⁾ 99년 신년사에서는 IMF 위기 극복, 국민 동참과 민주주의 실현으로 좌절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였다. 단결과 노력으로 성공적 “21세기”를 개척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희망의 “21세기”가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동참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희망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00년 신년사에서는 국민은 지식기반 “21세기” 지적·문화적 창의력을 지녔으며, 국민화합, 국정개혁, 신지식인 사회, 세계 일류경제, 남북협력

23) 조용립(2022:368)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라는 특수성을 지닌 정부로, “여야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인간혁명,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의 5대 혁명”, “정보화 혁명, 세계 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축진이라는 국정지표에 집중하자고 하였다. 새천년 신년사에서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평등 실현, 평화·인권·정의 등이 보편적 가치이며, “새천년”은 지식혁명의 시대, 중산층 중심의 사회, 계층·세대·남녀·지역·남북·노사의 갈등을 넘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G-7 국가로 나아가 꿈과 희망의 시대, 기회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IMF에도 외화보유액 증가,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향상, 실업자 수 감소, 경제성장률 10%, 국가신인도 등이 안정화되어 IMF 관리체제를 졸업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는 IMF 외환위기 극복,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01년 신년사에서는 IMF 위기 극복, 금융·기업·공공·노동의 “4대 개혁”완수를 전하였다. 민주와 인권 국가, 국민 화합, 지식경제 강국, 중산층·서민 생활 안정, 남북 긴장 완화와 협력을 전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순채권국가, IT·BT 발전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계 노력으로 과학기술 강국 추진을 전하였다. 여성지도자 신년사에서는 여성부 신설로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해방, 남녀평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4대 개혁 마무리로 체질 강화, “한국”의 정보화, 지식수준, 문화 전통에 자신감을 전하였다. 환경인 신년사에서는 “환경 보전”은 삶의 질 향상, 환경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으로 환경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02년 신년사에서는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대선과 총선을 깨끗하게 실현하고, IT·BT·CT·NT·ET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강화를 전하였다. 청와대 신년사에서는 “한국”의 성장은 유망 투자처, 제품 우수성, 월드컵 성공 개최는 이미지 제고 및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았다.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는 한국은 개도국의 모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개최에 “과학기술”인의 협력을 당부하였고, 지식기반 경제 시대의 국력이라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미래성장산업을 통해 “세계 일류” MADE IN KOREA를 강조하

였다. 환경인 신년사에서는 환경의 질 향상, 국토환경 보전, 차세대 환경 산업 육성, 국제 환경질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환경”의 질 상상을 전하였다. 설날 인사에서는 “월드컵” 개최로 평화와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어 일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03년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 부산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하였다. 신년인사회에서는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합의, SOFA 개정 등 대등하고 성숙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한국”의 놀라움과 성숙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경제와 민생문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직능단체 신년사에서는 변화된 한국은 IMF “외환위기” 극복, 기업 투명성 개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남북 교류 협력 등은 직능인들의 직업의식으로 앞장서기를 바랐다.

2003년 16대 취임사에서는 “동북아 시대”가 특성값이 높았다.²⁴⁾ 04년 신년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동북아”경제 중심 전략 실행, 경제 경쟁력 상승, 사회갈등 해결,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개혁을 하자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북한 핵위기, 이라크 전쟁, 사스 공포, 태풍 매미, 내수 침체, 카드채 문제 등 시련과 도전이 있었으며, 사회갈등의 해결, 노사 신뢰 구축, 경영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혁신과 인재 양성,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과학기술”인들이 선진국을 향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정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회복된 경기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 안정된 일자리, 2만 달러 시대의 기술 입국, 인재 입국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하였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안정화, 노사관계, 지방대학 특성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다짐하였다. 설날 신년사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위해 청년실업이 감소를 바라

24) 조용립(2022:368-369)에서는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국정운영의 좌표를 제시하며 “세계 경제, 외환 위기, 지속적 성장, 대외 경제” 등 경제적 어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하였다.

며,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시대를 전하였다. 정보통신인 신년사에서는 “정보통신”은 경제 희망이며,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신기술 개발, 시장 개척을 요청하고 있다.

05년 신년사에서는 경제 위기 원인은 “대기업”·중소기업, 첨단·전통 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지방, 계층 심화 해결을 제시하였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수도권은 지방에 상생과 연대, 양보와 타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06년 신년사에서는 “IMF”위기와 후유증 극복, 창의적·개방적 사고로 대화하여 민주적 절차, 책임지는 사회, 규범 존중을 요청하였다. 신년 연설에서는 미래는 경쟁력, 혁신주도형 경제로 과학기술 혁신에 집중하여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극화 문제, “일자리” 축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투명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07년 신년사에서는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부동산”, 교육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불안은 비전 2030정책으로 좋아질 것이며, “부동산”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년 연설에서는 “참여정부” 정책은 민생·경제 문제 등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분배적 복지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한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죄송”을 표현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실용주의 외교,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여 남은 임기의 책임을 다짐하였다.²⁵⁾

08년 신년사에서는 497자의 인사말로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태안에서의 국민의 저력을 믿고, 국가적으로 큰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25) 특히 신년 연설은 43,676자로 4년 동안의 참여정부 정책을 통계와 수치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 17대~19대(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어휘

17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22편,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18편(탄핵으로 2017년 미발표),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 1편, 신년사 7편이 발표되었다.

<표 6> 17대~19대 대통령의 특성값

구분	취임사 특성값	신년사	특성값	비고
17대 이명박 08.2.25. ~13.2.24.	대한민국 국민	2009년 새해	0.04106	09.1.1. 신년사
		경제 위기	0.00962	09.1.2. 국정연설
		경제 위기	0.01641	09.1.5. 대한상의
		경제 위기	0.02823	09.1.15. 당원
		한국 경제	0.02275	09.1.29. 주한외국인
		대한민국	0.02805	09.12.20. 10년 당원
		대한민국	0.03099	10.1.1. 신년사
		일자리	0.00974	10.1.4. 국정연설
		기업인	0.01141	10.1.6. 대한상의
		원자력	0.00837	10.1.8. 과학기술인
		일자리	0.01269	10.1.18. 여성지도자
	0.00968	세계 최고	0.02725	11.1.1. 신년사
		수출 세계	0.00796	11.1.3. 국정연설
		생산성	0.00868	11.1.5. 경제인
		세계 일등	0.01377	11.1.7. 과학기술인
		스마트 시대	0.01585	11.1.17. 방송통신인
		일자리	0.02324	12.1.1. 신년사
		일자리	0.00874	12.1.2. 국정연설
		일자리	0.01541	12.1.4. 위클리신년사
		세계 최정상	0.01445	13.1.1. 신년사
		세계 경제위기	0.01536	13.1.2. 위클리신년사
18대 박근혜	국민행복	국가 경제	0.02082	13.12.31. 14년 신년사

13.2.24. ~17.3.10.	시대	국정운영	0.01322	14.1.2. 정부신년인사회
		창조경제	0.01423	14.1.5. 경제계
		창의력	0.01250	14.1.7. 교육계
		창조경제	0.01865	14.1.9.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여성지도자	0.02137	14.2.3. 여성계
		경제 활성화	0.00911	15.1.4. 경제계
		여성지도자	0.01655	15.1.8. 여성계
	0.01655	창조경제	0.01181	15.1.13.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대구경북	0.03790	15.12.31. 16년 대구경북신년
		미래 30년	0.01747	15.12.31. 신년영상
		뒷받침	0.02869	15.12.31. 16년 군장병 신 년인사
		세계 경제	0.01224	16.1.3. 신년사
		혁신 노력	0.01025	16.1.5. 경제계
		여성지도자	0.01268	16.1.6 여성계
		교육 발전	0.01474	16.1.7. 교육계
		과학기술	0.01277	16.1.11.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중소기업	0.03083	16.1.17. 중소기업인
19대 문재인 17.5.10. ~22.5.9.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0.01630	18.1.2. 신년
		(남북) 선수들	0.04837	18.2.15. 신년영상
		나라 경제	0.01323	19.1.2. 신년사
		수출 세계	0.00585	20.1.7. 신년사
	0.02653	코로나19	0.03019	21.1.7. 신년인사회
		코로나19	0.01118	21.1.11. 신년사
		정부 임기	0.00802	22.1.3. 신년사

2008년 17대 취임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특성값이 높았다.²⁶⁾ 09년 신년사는 564자의 인사말로 “2009년 새해”가 특성값이 높았다. 이어진

‘국정연설’이 9,277자로 실질적 신년사로 볼 수 있다. “경제 위기”에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경제 위기” 극복을 제시하였다.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국정, 선진일류국가로 향한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규제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경제 위기”에서 비상경제체제 전환, 녹색산업 투자 요청, 기업인·근로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조를 요구하였다. 당원 신년사에서는 10년 만의 정권교체, 역할에 충실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요청하였다. 주한 외국인 신년사에서는²⁷⁾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 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사 문화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투자를 요청하였다.

10년의 당원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회복,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자고 하였다. 10년 신년사에서는 G20 의장국, 원자력 발전소 수출 등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라고 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 자신감으로 “일자리” 추진에 감사를 전하면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 활력과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 “일자리”, 소득 창출을 전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기업인”의 고통 분담, 혁신으로 세계무대 경쟁을 치하하면서, 녹색산업에 “기업인”들의 투자로 경쟁력 회복과 기여를 요청하였다.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는 세계 시장 확대를 기업 경쟁력 상승, “원자력” 연구자와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원전 수주, 기술 국산화율을 상승을 바랐다. 여성지도자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젊은이, 여성, 노인 등의 세계적 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였다.

11년 신년사에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26) 조용립(2022:370)에서는 17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진화, 국가 발전, 일자리, 경쟁력, 생활 형편” 등 “경제” 관련 어휘가 특성값이 높았다고 하였다.

27) “한국”이 특성값이 높았으나 “한국 경제”와 연관어로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 특성값으로 제시하였다.

최고”, 경제 성장, 수출로 중심 국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의 도약을 기약하였다. 안보 전략과 국방개혁 추진, 경제 살리기로 도약하겠다고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태양광 확충, 원자력 발전 수출 등 기후변화 시대에 녹색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인 신년사에서는 기업인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중요하며, 노사화합과 원칙주의로 경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는 수출, 경제, 과학 분야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젊은이의 목표는 “세계 일등”이며, 과학계도 같이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방송통신인 신년사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미지의 길은 시대 선점이 필요하며 협력을 부탁하였다.

12년 신년사는 인사말로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일자리” 확충,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 해외자원개발에 “일자리”를 만들어 IT, 과학기술분야 조성 등 녹색성장을 발전의 토대로 삼겠다고 하였다. 위클리 공감 인사말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미국과의 FTA, 4대강 사업, K팝 문화 수출 등의 성과가 행복한 삶과 빈부격차 해소라고 하였다.

13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스포츠, 녹색 강국으로 세계 중심 국가라고 하였다. “세계 최정상” G20,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로 국제적 위상, 발전과 기적의 역사가 될 것이라 하였다. 위클리 공감에서는 세계 7번째 인구 5,000만 명과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 진입, 신용등급 상승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이라고 하였다.

2013년 18대 취임사에서는 “국민행복 시대”가 특성값이 높았다.²⁸⁾ 14년 신년사는 인사말로 “국가 경제”는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 신년 인사회에서는 “국정운영”은 입법, 사법, 행정, 지자체, 경제 주

28) 조용립(2022:370)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 창조경제, 경제부흥, 문화융성, 행복한 나라, 중소기업, 한강, 일자리,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위기 극복 및 경제 발전으로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하였다.

체들이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소임을 다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창조경제”추진단의 경제 회복 노력, 대기업·중소기업 합심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자고 하였다.²⁹⁾ 교육계 신년사에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를 움직인다고 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사에서는 “창조경제”타운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가 창업으로 연결됐으며, 과학기술이 세계 선도 분야라고 하였다. 여성계 신년사에서는 첫 여성 대통령,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 인내와 저력을 발휘하여 “여성지도자”들이 각 분야에서 여성 1호가 되어 국민행복, 여성행복 시대를 여는 지혜를 부탁하였다.

15년 경제계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에 감사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계 신년사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 “여성지도자”들의 역할이 컸으며, 창의적·진취적 자세로 참여를 요청하였고, 양성평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사에서는 “창조경제”타운, 혁신센터 건립이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열자고 하였다.

16년 신년사는 9편이 발표되었다. “대구·경북” 신년사에서 대구의 자율주행 자동차, 웰니스산업, 경북의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응용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를 이끌 것이라고 하였다. 신년 메시지에서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을 완수해서 “미래 30년”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군 장병 영상에서는 북한의 DMZ 도발에 살신성인, 전우애는 감동을 주었고, 정부가 임무 수행을 “뒤통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

29) 국가기록원 제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2014~2015년 신년사에서 ‘1. 새해 인사, 2. 지난해 경제성과 평가, 3. 새해 경제정책 방향 및 중점과제, 4. 경제계에 대한 당부, 5. 맺음말로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 김순옥(2022:116)에서는 1. 도입(새해 인사, 회고, 감사, 국정과제 제시), 2. 전개(현 상황, 분야별 정책 제시(정치, 경제, 등)), 3. 마무리(국민 협조 요청, 소임 의지, 국가 발전 기원, 새해 덕담)으로 신년사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신년사에도 개요가 등장한다. 이러한 글의 구조는 국어교육, 글쓰기 교육 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어려워 후속 연구에서 자세히 밝히기로 한다.

신년 인사회에서는 FTA로 경제 영토를 넓혔으며, “세계 경제” 침체를 경제개혁과 국가혁신 과제 달성으로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였다. 경제계 신년사에서는 경제개혁과 혁신과제로 미래 30년 성장 기반 구축, 창조경제 구현, 산업 혁신, 신기후체제 출범과 “혁신 노력”하여 경쟁력을 키우자고 하였다. 여성지도자 신년사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최고치, 남성의 육아참여 증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맞춤형 보육으로 일하는 여성의 고충이 줄었다고 하였다. 교육계 신년사에서는 학생 창의력과 인성 발굴, 인성교육진흥법의 내실화를 바라면서, 개혁 동참으로 “교육 발전”에 최선을 바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사에서는 헌신과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UAE 원전 수출, 중소형원자로(SMART) 수출, 나로호 발사, ICT 수출, 벤처기업 설립 및 투자는 창조와 도전의 성과이며, 인재를 양성하여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인 신년사에서는 “중소기업”인의 노력으로 수출 증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법이며, 공영홈쇼핑, 해외 순방 등 수출 판로 개척의 의지를 보였다.

2017년 19대 취임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성값이 높았다.³⁰⁾ 18년 신년사에서 촛불혁명, 민주주의 혁명의 해, “대한민국” 존중, 중견 국가의 당당함, 수출 대국,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의 전환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잘못된 제도와 관행 바로잡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며,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을 소망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집단적 염원이라고 밝혔다. 신년 영상메시지에서는 “남북 선수들”의 도전에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19년 신년사에서는 “나라 경제” 성장에도 내 삶이 힘들다면서, 2차 대

30) 조용립(2022:371)에서는 취임사 어휘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광화문 대통령 시대, 권위적 대통령, 전임 대통령 탄핵, 현직 대통령, 동반자, 정치 발전, 세대 간 갈등” 어휘들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전 이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로써 자부심을 전하였다. 선진 경제 추격 한계로 혁신과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산업정책,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꾼 촛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과 혁신 선도를 전하였다.³¹⁾

20년 신년사에서는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100년, 4·19 60주년, 5·18 40주년, 촛불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나와 이웃의 삶 회복,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을 이끌어 “수출 세계” 7위의 무역흑자, 한류 활성화를 밝히고 있다. 공정 경제, 한반도 평화, 남북철도 연결, 아세안 협력 등을 강화하여 노와 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의 상생 도약,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되도록 뛰겠다고 하였다.

21년 신년사는 “코로나19”에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으며,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일상,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였다. “코로나19” 관계자 등 K-방역의 성과에 감사를 전하였다. 신년사에서는 “코로나19”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 K-방역의 세계 보급, 방역 모범국가, 국민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 극복의 힘, 외교, 기후변화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 소프트파워 선도, 남북협력 등 일상과 경제 회복으로 보았다.

22년 신년사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하였고, 위기 극복의 정상화, 미래 개척 정부로써 노력을 전하였다.

31) 2019년 신년사는 제공되지 않아 한국정책방송원(KTV)을 참조하였다.

IV. 끝맺는 말

이 연구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 중 취임사와 신년사의 어휘 특성값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취임사와 신년사는 국가 당면 과제, 사회적 지향점, 국정 목표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록물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이 연구에서는 74년간 취임사 19편, 신년사 150편을 연구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특성값 어휘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특성값 추출 어휘는 연설문에서 객관적 주제어를 추출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장에서는 대통령별 요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도록 한다.

<표 7>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문의 특성값

	취임사	신년사
1대	눈물	민주정체 / 아세아 자유 / 불평분자들 / 공산군
2대	원수들	침략자들 / 미국 / 미국 / 공산주의 / 우방들 / 공산당 / 남북통일 / 남북통일
3대	우리나라	헝가리 / 헝가리 사람들 / 사람들 / 우방들 / 동포들
4대	외교정책	
5대	공화국	공무원 / 수산자원 / 경제건설 / 근대화 / 자유 월남 / 양국국민
6대	민주주의	경제 건설 / 조국 재건 / 건설 / 자유 / 국민 생활 / 문화 민족
7대	통일 조국	평화 통일
8대	민족 통일	유신과업 / 유신과업 / 국제 경제 / 경제 발전 / 세계 경제 / 국민 정신
9대	국민생활	정신 문화
10대	국민 각계각층	사회 안정

11대	민주주의	공화국
12대	국가 민족	5공화국 / 동포들 / 평생동지 / 국제환경 / 선조들 / 평생동지 / 스스로 개척 / 평생동지 / 나라 안팎 / 발걸음 / 아시아 / 민주정의당 평생동지
13대	민주주의 시대	계층 국민 / 민주화 / 민주주의 / 민주주의 / 민주주의 / 경제적
14대	신한국	세계 질서 / 해외동포 / 세계화 / 21세기 / 중소기업 / 세계 일류국가 / 신한국당 / 경쟁력 / 국민 대화합 / 지도자
15대	21세기	21세기 / 21세기 / 21세기 / 새천년 / 21세기 세계 / 과학기술 / 4대 개혁 / 한국 경제 / 과학기술 / 한국 / 환경 보전 / 국민 여론 / 한국 / 과학기술 / 세계 일류 / 우리나라 환경 / 월드컵 / 대한민국 / 미국 / 한국 / 외환위기
16대	동북아 시대	동북아 / 정치 지도자 / 과학기술 / 경쟁력 / 지역균형발전 / 정보통신 / 대기업 / IMF 위기 / 일자리 / 부동산 / 참여정부 / 새해 인사
17대	대한민국 국민	2009년 새해 / 경제 위기 / 경제 위기 / 경제 위기 / 한국 경제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일자리 / 기업인 / 원자력 / 일자리 / 세계 최고 / 수출 세계 / 생산성 / 세계 일등 / 스마트 시대 / 일자리 / 일자리 / 세계 최정상 / 세계 경제위기
18대	국민행복시대	국가 경제 / 국정운영 / 창조경제 / 창의력 / 창조경제 / 여성지도자 / 경제 활성화 / 여성지도자 / 창조경제 / 대구경북 / 뒷받침 / 미래 30년 / 세계 경제 / 혁신 노력 / 여성지도자 / 교육 발전 / 과학기술 / 중소기업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 (남북) 선수들 / 나라 경제 / 수출 세계 / 코로나19 / 코로나19 / 정부 임기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취임 목표를 밝히는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신년사는 대통령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이다. 또한 대통령 연설문은 전문가의 작성 및 수정을 거듭함으로써 형식과 내용에서 글쓰기 또는 말하기 구성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글의 구성, 메시지 전달 방식, 인용 방식, 글의 마무리 방식 등은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태완·김은정(2004),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과 역할규정」, 『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2호, pp.53-89.
- 곽송연(2018), 「1980년대 이후 한국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민주주의 담론 변화 연구」, 『OUGHTOPIA』, 제33권 제2호, pp.35-74.
- 권향원·최도립(2013),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학 연구』, 제19권 제3호, pp.285-320.
- 김병홍(2017), 「대통령 취임사의 언어 특성 분석」, 『우리말연구』, 제51권, pp.161-185.
- 김순옥(2022), 「대한민국 대통령 신년사의 어휘 사용 양상 연구」, 『텍스트 언어학』, 제52권, pp.113-150.
- 김재희(2018),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의미 연구」, 『텍스트 언어학』, 제44권, pp.1-33.
- 김현국(2001), 「연설문의 문체 연구 -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청람어문 교육』, 제23권, pp.243-297.
- 박준형·유호선·김태영·한희정·오효정(2017),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 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57-78.
- 서중석(2007), 『한국현대사 60년』, 고양, 역사비평사.
- 이귀혜(2007), 「한국 대통령들의 설득 수사학」, 『한국소통학보』, 제8호, pp.276-312.
- 이정복(2003), 「대통령 연설문의 경어법 분석」, 『배달말』, 제33권, pp.213-237.
- 이창수(200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담화와 인지』, 제15권 제2호, pp.143-161.
- 조수곤·조재희·김성범(2015),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트렌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제41권 제5호,

pp.453-460.

조원형(2017),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연설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수사학』, 제29권, pp.217-245.

조용림(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글쓰기 자료 분석」, 『문화와 융합』, 제42권 제5호, pp.279-307.

조용림(2022),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 연구」, 『지식과교양』, 제9호, pp.351-379.

조태호(2001),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과 응용」, 『지식정보인프라』, 제5권, pp.76-85.

황창호 · 이혁우 · 임동완(2015),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9권 제4호, pp.27-50.

Aggarwal, C. C. and Zhai, C.(2012), *Mining text data*, Switzerland: Springer.

Chakraborty, G., Pagolu, M., and Garla, S.(2013), *Text Mining ad Analysis : Practical Methods, Examples, and Case Studies Using SAS*, North Carolina, USA: SAS Institute.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

《대통령기록관》, <연설기록>, <<https://www.pa.go.kr/>>.

《빅카인즈 형태소 개체명 분석》, <[https://www.bigkinds.or.kr/v2/analysis/feature Extraction.do](https://www.bigkinds.or.kr/v2/analysis/feature%20Extraction.do)>.

국문초록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대통령의 연설문 연구

-취임사와 신년사를 중심으로-

조용림
(목원대학교)

이 연구는 1948년~2022년까지 74년간의 대통령 취임사 19편, 신년사 150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연설문 연구는 어휘 빈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의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여 어휘 빈도와 알고리즘에 의한 연관어 파악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특성값 추출에 의한 특성값 어휘는 연설문 내에서 비중이 큰 값을 표시하여 연설문의 핵심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임무를 시작할 때 국민에게 자신의 취임 목표를 밝히는 것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신년사는 대통령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이다. 덧붙여 대통령 연설문은 국가기록물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충실성, 주제의 명확성, 내용의 전달성, 법률 적합성, 정치적 가치관, 개인적 신념 등을 담고 있는 대통령 연설문 연구는 국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텍스트 마이닝, 대통령 연설문, 취임사, 신년사, 특성값 추출, 어휘

Abstract

**A Study on the President's Speech
Using Text Mining**
—Focusing on the President's Inaugural Address and
New Year's Address—

Joe, Yonglim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peeches of former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mong them Big kinds feature analysis and Google trend analysis were used for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address and the New Year's address. In particular, 'characteristic value' vocabulary was targeted.

The president's inaugural address reveals his inauguration goal to the people at the beginning of his first mission. The inaugural address is a valuable resource for examining the president's philosophy and future. The President's New Year's Address is a material that specifically reveals the President's action plan for state affairs. In addition, presidential speeches occupy an important place among national records.

Presidential speeches are written and revised by the president and experts. The form and content of a speech can be a template for writing or speaking structure.

Speeches have a great educational effect,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introduction-body-conclusion, message delivery method, quotation method, and conclusion method.

Key words Text Mining, President's speech, President's Inaugural Address, President's New Year's Address, Characteristic Value Extraction(Text Rank Algorithm Value), Vocabulary

-
- ▶ 논문투고일: 2023.03.26
 - ▶ 심사완료일: 2023.04.14
 - ▶ 게재확정일: 2023.04.17